

행복한교회 목장 예배 자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목자목녀님들께 배포해드린 목장모임 표준안 참조)

1. 식사 모임 (애찬)

-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밥=가족, 간식=손님).
- VIP는 스스로 원하지 않는 한, 집 공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자녀와의 시간 (올리브 블레싱)

- 자녀가 한 명(태아포함)이라도 있으면 모든 목장에서 반드시 올리브블레싱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올리브블레싱의 목적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믿음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족공동체(목장)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자녀들끼리 앉지 않고 어른들이 사이사이에 앉아서 찬양 1-2곡을 부릅니다.
- 나이순으로 감사한 것과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눕니다(목회일기에 포함).
- 부모들이 자녀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한 후 어린이 목자 또는 어른 목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 목장에 참여하는 자녀들이 없을 경우 자녀들과 다음세대를 위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 올리브블레싱 후 어린이 목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 목장을 따로 진행합니다.

3. 찬양을 통한 경배(worship) - 찬양부장이 인도

4. 지난주일 말씀 나누기(20분 이내)

- 말씀나누기 진행자가 담당합니다(성경지식이 필요한 자리가 아니기에 초신자가 말으면 좋습니다).
- 모든 목원이 간단하게 돌아가며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나눕니다.
- 20분을 초과하지 않으며, 나누는 중 다른 사람이 끼어들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자기 수준에서 깨달은 내용을 나눕니다.

5. 연합교회 광고 나누기

- 주보를 활용합니다.(VIP들의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6. 목회자 칼럼 읽기

- 지난주 목회칼럼을 읽어줍니다.(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 공유)

7. 목장 약속문 함께 읽기

8. 삶 나누기

- 지난주 기도제목에 대해 응답받은 내용이 있으면 먼저 나눕니다.
- 감사했던 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나눔 시 “기도하면 됩니다” 식의 교과서적인 답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성경구절만 인용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붙들고 승리한 경험을 말해야 합니다.
-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 목장에 나온 지 오래된 분은 깊이는 유지하되 핵심만 간단히 나누고 VIP 등 새로 오신 분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9.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 모든 나눔 후 두 명 정도씩(부부, 가족 등) 묶어서 짧게 중보기도합니다.
- 목원 가정에서 모임을 가진 경우 마지막에 목자가 장소를 제공한 목원을 위해 특별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0. 선교지와 VIP를 위한 기도

- 후원 선교사님 소식이 있으면 나누고 선교헌금 시간을 갖습니다.
- VIP는 가족, 친지보다는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 자주 만나고 목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좋으며, VIP를 위한 중보기도문을 활용합니다.

11. 목회일기 작성

목장모임 말씀 나눔시

(9월17일 주일설교/빌레몬서1:17-23/예수님의 종, 성도들의 종)

17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18 그가 그대에게 잘못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19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20 형제여,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호의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에 생기를 넣어 주십시오. 21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말한 것 이상으로 해주리라는 것을 압니다. 22 그리고 나를 위하여 속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무안합니다.

우리들은 “사람 재산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국민드라마로 큰 인기를 모았던 <상도>에서 유행이 된 말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는 말이 현대인들의 가슴을 크게 울렸던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 하면서 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리고 누가를 언급하면서 그의 사역이 자기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런 여러 명의 동역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빛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오늘은 에바브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의 스승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살전5:17) 그런데 바울의 스승은 누구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밤새워 고쳐주시고도 새벽기도 하시러 가신 분입니다.(막1:35).

기도는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절실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대한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에바브라는 정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였지만 골로새교회만이 아니라,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골4:13) 그렇게 바쁜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도의 기본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에 나의 온 힘을 다 쏟아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써”(=레슬랑을 하듯)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에 에바브라가 우리의 존경을 받을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한 것입니다. 즉 에바브라는 예수님의 종임과 동시에 그가 섬기는 성도들의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에바브라는 참 바쁜 사역자였지만 바울을 위해서라면 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처럼 사람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영 기도를 하지 못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관계가 좋지 못할 때입니다. 서로 오해가 생겼다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자존심 대결을 벌일 때면 기도를 못합니다. 그렇게 이웃과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배우자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목원과의 관계야 어떻든지 나와 주님과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를 보고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말씀에는 “아멘!” 순종한다고 하는데 너희가 “서로 받으며 종이 되라”(갈5:13, 롬15:7)는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만큼 우리가 서로 받으며 서로 존로릇하며 살아가기를 더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말고 에바브라가 보여준 기도와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에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 주위 사람들의 종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좋은 주인을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일을 해 보았습니까? 내가 요즘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나에게서” 찾아봅시다.



목회자 칼럼

자녀는 부모의 영적인 카나리아입니다.

“광부들이 깊은 갭도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아십니까? 곡괭이, 삽, 랜턴, 물, 음식, 무전기, 시계, 성경책, 가족사진 등등. 하지만 그런 중요한 것들과 함께 꼭 챙겨가는 것이 있는데, 카나리아라는 새입니다. 카나리아는 공기에 민감해서 유해가스가 조금이라도 유출되면 죽습니다. 광부들은 열심히 작업하다가 카나리아를 쳐다보는데, 만약 카나리아가 쓰러져 있으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밖으로 뛰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거북한 십대, 거룩한 십대>라는 책에서 유진피터슨 목사님은 ‘자녀는 부모의 영적인 카나리아!’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영적으로 쓰러지는 이유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기류가 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어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따끔하게 혼내도, 좋은 말로 타일러도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사회적인 기류를 맑고 밝고 차분하게 조성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영적 카나리아인 아이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어느 시기가 되면 대체적으로 영적, 지적, 정서적, 관계적으로 안정감을 찾으면서 성장이 멈추는데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 때문에 부모 자신이 성장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선물입니다. 자녀는 혼란 속에서 끊임없이 부모의 성장을 자극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앞드리도록 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무력감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앞드리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부모의 눈에는 장애가 심히 걱정되는 자녀지만, 그 자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자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나보다 더 성실히 돌보시고 성장하도록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 때문에 성장하게 됩니다. 사춘기를 가리켜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합니다. 요새는 자녀들의 사춘기가 빨리 온다지만, 어쨌든 아이의 사춘기 때 가정이 힘든 이유는 두 개의 태풍이 가정에 휘몰아치기 때문인데, 곧 사춘기 못 지않은 태풍인 부모의 갱년기가 그것입니다. 청소년 목장을 출범하면서 지난 주간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오! 자녀와 함께 성장하십시오. 기도과 말씀 안에서, 그리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나도 흉내내보면서. -손목사-

☎ 042-826-9191~4, FAX 042-822-0691

☎ (042)826-9191~4, FAX (042)822-0691

http://www.inhappy.org

교회 소식

*저희 교회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부 예배 후에는 2층 새가족실에서 담임목사와 함께 식사하며 교회에 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3면에 있는 <교회등록절차>를 보시고 새가족반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감사

9월 한기 금식 및 공동체 금식을 하면서 드리신 헌금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자립준비청년 후원금으로 잘 전달하였습니다. 기도하며 동참하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 목장 연합 가을 운동회

1)일시 : 10월 21일(토)

2)장소 : 세종 연동중학교(세종 내판로 10-13)

3)선약이 없으신 분들은 미리 시간을 확보해주셔서 전 교인이 함께 교제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3. 담임목사 목장탐방

필리핀 민다나오목장(이창직목자) 탐방이 22일(금)에 있습니다.

4. 중보기도함 이용

79명이 기도해주시는 기도의 삶 중보기도함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응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중보기도함에 기도카드를 넣어주세요.

5. 가정교회 지역모임

가정교회 아동부 지역모임이 21일(목)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6. 예수영점모임

17기 예수영점모임이 이번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기신자 2명 신청 가능)

7. <말씀보화찾기> 성경 통독 34주차

1)로마서 4장 ~ 고린도후서 1장까지

2)말씀수첩 구입은 1층 교역자실에서.

8.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108회 총회가 18일~22일까지 새로나교회당에서 있습니다.

9.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

필경대에 비치되어 있는 하반기 일정표를(1,2층 게시판에도 붙어 있음) 참고하셔서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 교우동정

1)이사 : 이동수(최예숙)목자, 장대동으로.

김용성(천용순)집사, 송림마을로.

2)꿀판매 : 전영웅(김계식)집사님 가정이 직접 재배하신 꿀을 판매하니(로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성구암송

로마서 15: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